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새 CEO 후보 7월께 확정

KT, 사외이사 선임절차 돌입
오는 16일까지 주주추천 접수받고
선임과정서 사내이사 참여 배제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하고
대표이사 선임 등 개선방안 마련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뉴시스

KT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는다. 특히 KT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부터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예비 후보는 주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다.

KT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지난 4월 17일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뉴 거버넌스 구축 TF(이하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소유분산기업의 내부 참호 구축 및 낙하산 인사 방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KT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TF는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내외 통신사 및 소유분산기업 사례 검토, 글로벌 선진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K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TF 위원간 5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첫번째 단계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KT의 경우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한다. 8일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주주 추천은 8일부터 16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주주 추천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써치펌) 추천 후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구성하되, 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외부에서 제기된 경영진의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TF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선자문단은 사외이사 후보들을 전문성·독립성·공정성·충실성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고 심사한다.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또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 및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및 내부 참호 구축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한정하는 등 사내이사 수 축소(사내이사 3인→1인),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조정,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위원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T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6월 말 선임할 예정이다.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네이버 "올 여름 '하이퍼클로바X' 첫 선"

〈초거대 AI 모델〉

최수연 대표 "이미지·음성 이해
계산기·지도 등 API 활용 답변도"

"창작·여행예약 서비스 고도화 적용
이용자 경험 확대… 윤리 등 논의중"

네이버가 올 여름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다.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사진)는 8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 여름 생성형 AI인 차세대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는 이미지 및 음성을 이해하고 계산기, 지도 등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답변도 가능하다"며 "검색에서는 생성형 AI 사내 베타 테스트를 상반기 중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B2B(기업간 거래) 제품으로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맞춤형과 데이터 이슈를 잘 해결해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반기에 업그레이된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며 "고객의 데이터와 하이퍼클로바X를 결합해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도록 클로바스튜디오가 대폭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초거대 AI 모델이 검색 쇼핑 외에 블로그 창작이나 여행 예약 서비스 고도화 등에 적용해 이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다"며 "AI 윤리와 데이터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등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AI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진출과 관련 "일본에서 연내 라인웍스, 네이버웍스 등 생산성 도구에 하이퍼클로바X를 접목한 기업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네이버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AI와 결합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한 올해 초 인수를 완료한 북미 패션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포쉬마크는 영업비용 효율화와 마케팅 비용 최적화 등 노력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돼 당초 내년 목표였던 EBITDA(상각 전 이익) 흑자 전환을 이번 분기에 조기 달성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는 대다수 미국 패션 C2C 플랫폼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이용자 리텐션을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비용 효율화와 신규 수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나 늘어난 3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가 증가한 2조 280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인건비 성장이 둔화된 것과 마케팅비 효율화, 포쉬마크의 EBITDA 흑자 달성 등이 주 원인이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 플랫폼 8518억원 ▲커머스 6059억원 ▲핀테크 3182억원 ▲콘텐츠 4113억원 ▲클라우드 932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새로운 주주환원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최근 2개월 평균 연결 잉여현금흐름의 15~30%를 전액 현금 배당해 지급할 것"이라며 "총 환원규모를 30%로 측정했지만 이보다는 유연한 레인지로 15~30%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KT '복잡한 코딩' 블록 쌓듯이 쉽게 공부

'AI 코디니'에 'AI로봇큐브' 등 추가

KT가 AI(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AI 코디니'에 새온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알티노'와 스마트큐브랩스의 'AI로봇큐브'를 새로운 AI 프로그래밍 교구로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KT 'AI 코디니'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존 코딩 방식 대신 블록 형태로 쌓아가며 AI 코딩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AI 코딩의 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든 AI 교육 플랫폼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코딩 입문자들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번 협력으로 KT 'AI 코디니'에 새온의 자율주행 로봇 교구 '알티노'와 스마트큐브랩스의 'AI로봇큐브'가 연동돼, 학생들은 더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됐다. 카메라 영상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거나 음성명령으로 '알티노' 로봇의 자율주행을 명령하거나, 음성과 동작인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난이도로 'AI로봇큐브'를 게임처럼 만들 수 있어 더 창의적인 AI 코딩 교육이 가능하다. /채윤정 기자

KT AI 코디니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 등촌동의 한 러닝센터에서 아이들이 AI 로봇 교구를 이용해 학습하고 있다. /KT

SKT "이프랜드서 美 할리우드 산 만나요"

실사이미지 기반 명소 5곳 선보여
남산서울타워·강남역 사거리 등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 내 소통공간인 이프스퀘어(if square)를 통해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국내외 명소들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SKT가 선보이는 국내외 명소는 미국 LA 할리우드 산(Mt. Hollywood), 남산서울타워, 청계천, 강남역 사거리, 홍대입구역 사거리 등 총 5곳이다. 이번 명소들은 기존의 이프스퀘어가 그래픽 방식으로 제작되던 것과 다르게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돼 현실감을 크게 높였다.

SKT는 이번 실사 기반 국내외 명소 오픈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전세계 이용자들이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자유롭게 구경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 기자

LG U+, 커넥티드카 강소기업에 개발금 1억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 개최
현대모비스·오비고 3사 협력

LG유플러스는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개발금을 지원하는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은 차량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적용가능한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급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특화 서비스 선도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공모작에 대한 정확한 기술성 평가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오비고'와 함께 공모전을 개최키로 했다. 3사는 지난 2021년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국산화를 위해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협력생태계 컨소시엄'에 참여해 협력해오고 있다.

각 사는 사업성·실현가능성·창의성·기술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발표 과제를 거쳐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채윤정 기자